



한 겨울에 킬리만자로를 오르는 '희망원정대'



우리나라

의 대표적 인 산악인인 엄홍길 씨와 함께 장애인 10명이 해발 5800미터에 달하는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를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름하여 '희망원정대'.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3급 지체장애자에서부터 어린이를 구하다 의롭게 두 다

리를 잃은 철도원 김행균 씨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10명의 정상인 멘토(후원자)와 함께 12월의 킬리만자로에 오를 것입니다. 이번 원정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마음이 되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비장애인은 비장애인으로 서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맞잡은 손과 가슴으로 산에 오르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지고 개인주의화 되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 자기도 모르게 빙그레 웃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정상인이면서도 불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음이 장애인인 경우는 그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마음의 장애는 자포자기와 실망에서 옵니다. 여러 번의 좌절을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절망이 반복되면 깊은 수렁과 같은 우울과 벗하게 되고 밖으로는 공격적 성향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탕을 하는 법입니다. 진정한 장인은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고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서투른 목수는 '니 탕'에 매달려 본인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

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희망도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희망 원정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원정대에 참가한 10명의 장애인과 멘토들이 정말 용기있는 분들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ESCO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92년 도입된 ESCO사업이 2005년에 들어서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은 '연장 탕'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혹여 우리가 같은 멀쩡한데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장애를 겪고 있던 탕은 아니었을까요? 밤새 곡을 하고 다음 날 누가 죽었다고 물어본 적은 없었을까요? ESCO는 기본적으로 ESCO의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고효율기와 창의적인 시스템 제안으로 에너지절약에 투자한 후 발생하는 에너지절약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모험적인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와 모든 사업이 모험이요, 벤처인데 ESCO사업은 창의력이 요구되는 진정한 벤처로서 초창기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ESCO를 고루한 보수적인 사업모델로서 해석하고, 영업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의성의 부재와 "연장 탕"이 오늘 날의 ESCO사업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원정대처럼 정부리는 멘토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창의성 있는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우고 "연장 탕"을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정부리는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진정한 멘토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회장 유제인